



광주는 얼마나 열려있는 도시일까?

광주문화기관협의회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 발간 서울·프랑스 비롯 타지 출신 기획자 등 20명, 광주 삶 담아

외부자 시점이라는 게 있다. 외부의 눈으로 바라보면 좀더 실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사물이나 공간뿐 아니라 조직도 그러하다. 내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면들을 보게 된다.

하나의 유기체적인 구조로서, 문화예술의 결집체이기도 한 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특정 도시에서 살아왔던 이들과 밖에서 들어온 이들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타자의 시각으로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 볼 때,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부산, 창원, 인천, 전주 멀리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광주로 건너와 문화 동지들을 틈 이들의 문화여정을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은 광주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타 지역 출신 문화인 20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문화적 외부자였다가 광주문화의 주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문화도시 광주의 현재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책은 광주문화재단 등 광주 문화 기관들의 협의체인 '광주문화기관협의회'가 발간했다.

무엇보다 저자들 면면이 다채롭다. 이하영(독립큐레이터), 송재영(소설가), 조숙희(시인강사), 박경애(발레리나), 윤석문(화가), 차예지(공예기획실장) 등으로 연령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이 광주와 인연을 맺고 선택한 이유도 각각 각색이다. 창작스튜디오에 지원했다 정작한 김호

대표와 임현재 화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또는 업무상 방문했다가 정착한 가도근 무대감독과 박재만 디제이 아티스트, 친구와 동업하기 위해 정착한 댄서 겸 바텐더 박경빈 씨 등 계기는 달랐지만 지금은 광주를 '모티브'로 문화예술의 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 실제 광주에서 생활하며 느낀 단상들은 '문화의 경계 허물기'라는 관점에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광주가 얼마나 열려있는 도시일까라는 생각과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라는 이 도시 자체도 뭔가 언더, 이방인성이 있다. 사회적인 아픔이 큰 도시지만 그 아픔이 광주의 아이덴티티,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미디어아트 작가 김이나)

"광주의 건물들, 동네와 골목길에는 어떤 슬픔의 정서가 있다. 비단 5·18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이 도시가 지닌 색깔인 것 같다... 그 누구도 붙잡지 않았는데 매정하게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같은 게 있다."(독립서점 '책과생활' 대표 신현창)

김이나 작가나 신현창 대표는 광주의 아이덴티티와 슬픔의 정서를 이야기한다. 그것이 '이방인성'일 수도 있고 광주가 지닌 고유의 색깔일 수도 있다. 광주가 발하는 어떤 결이 문화인들에게는 혹여 배타적이거나 무감각한 느낌을 줬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광주의 자부심은 확장되고 넓어지는 데 있다. 울타리를 깨고 외연을 점차 넓혀가는 과정에서 광주의 문화자신은 빛을 발할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국제적 인프라 덕분에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

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 내부적으로는 투쟁의 시대에 묶여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광주가 해낸 시대적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광주니까, 광주는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임현재 화가)

광주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인터넷 과정으로 광주에 왔다가 결혼을 하고 정착한 가족 공예가 줄리아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정말 예쁜 곳들이 많은데 다음에 가보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있다"며 "광주는 역사 문화적으로 잠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도시 같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로 들어온 문화인들 가운데는 "지방에서 사는 못 먹고 사니 서울에서 기반을 잡아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김경찬 강연콘텐츠 플랫폼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행사를 해보면 지방으로 올수록 무형의 가치에 돈 내는 걸 다소 꺼려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무형의 가치, 그것도 강연,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홀췌처럼 뿌리내린 이들의 이야기는 광주를 더 광주답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15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는 이영신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는 광주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는 '광주가 꽃을 피우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아직 피지 않는 꽃봉오리들이 광주의 문화에는 존재하고 언젠가는 더 많은 꽃을 피워낼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광주에서 다양한 문화의 꽃들이 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를 연기한 배우 강동원.

영화 '1987'·소설 'L의 운동화'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별세 소식에 다시 주목 장준환 감독 빈소 찾아 추모... 강동원·김태리도 예정

9일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빈소에 이 열사와 6월항쟁을 다룬 영화 '1987' 제작진이 다녀가면서 그의 삶을 다룬 영화, 소설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87'을 제작한 장준환 감독과 김경찬 작가는 9일 조선태방원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이 열사를 연기한 배우 강동원과 김태리 등이 빈소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원은 영화 개봉 당시 대학생들을 상대로 '5·18항쟁' 관련 비디오 시사회를 갖는 등 광주민주화운동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또 이 열사와 같은 시기 학교를 다녔던 영화배우 안내상(연세대 신학과) 등도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 7월 5일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희생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150만 추모 인파가 모여들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그린 '1987'은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이 열사의 죽음 등을 통해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담아낸 작품이다.

영화에서 이 열사 역으로 특별출연한 강동원은 해당 역할을 맡으며 이 열사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는가 하면, 이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장 감독과 함께 이한열기념관을 방문, 이 열사가 피격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유품을 둘러보기도 했다. 또 이한열기념사업회에 2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배우 김윤석·하정우·유해진·김태리·박희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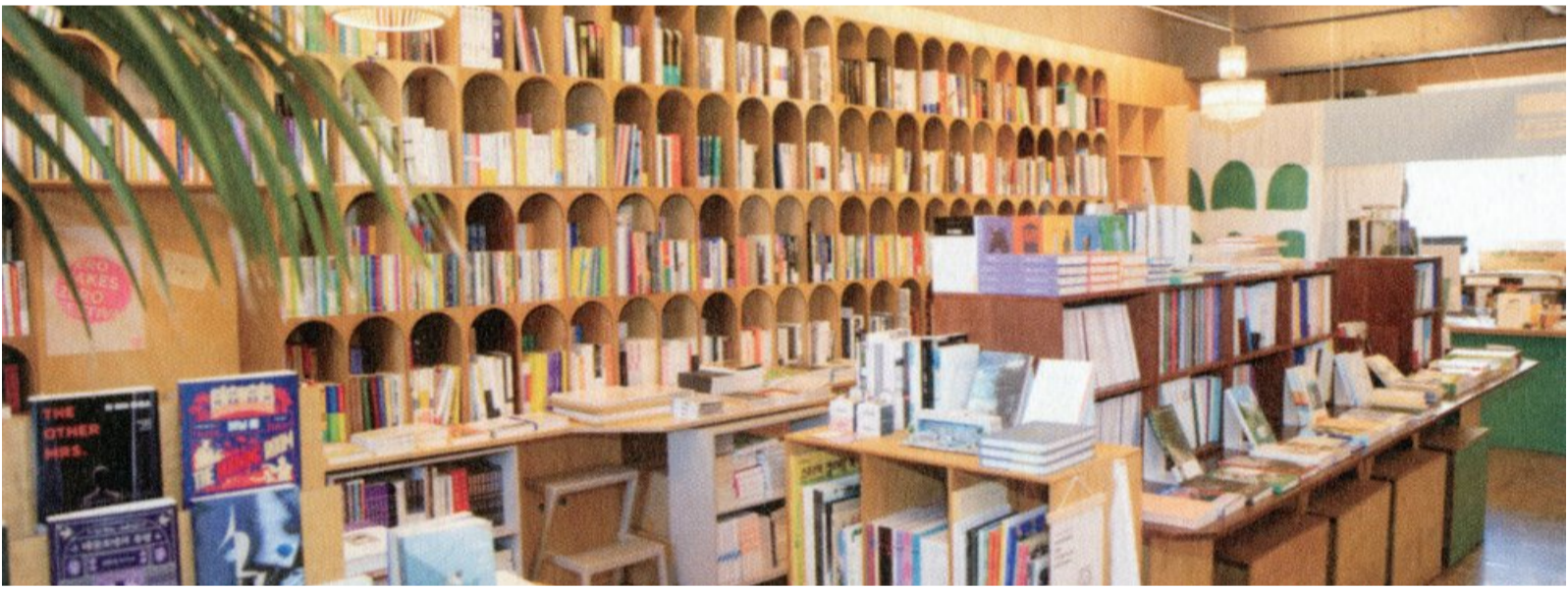
·이희준 등이 출연한 '1987'은 723만 명이 관람했으며 제39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촬영조명상 등을 수상했다.

김숨 작가의 소설 'L의 운동화' (사진)는 이 열사가 피격 당시 신었던 270mm 흰색 '타이거' 운동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 운동화는 현재 오른쪽 한 짝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시간이 흐르면서 밑창이 100여 조각으로 부서질 만큼 크게 손상됐지만 지난 2015년 그의 28주기를 맞아 미술품 복원 전문가인 김경 박사(김경미술품보존연구소)가 3개월 동안 복원했고, 현재 이한열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김 작가는 김경 박사가 복원한 자료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소설을 집필했으며 운동화를 통해 한 시대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라 할 수 있는 운동화 한 짝이 '사적인 물건'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물건'으로 역사적인 상징이 되는 과정을 세세히 그려내며, 삶과 죽음, 기록과 기억, 훼손과 복원의 문제를 다룬다.

책에는 미술품 복원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열사의 생존 당시 이야기와 그의 친구들 및 유가족들의 뒷이야기도 담겼다. 한편 'L의 운동화'는 당시 대산문화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문화적 외부자였다가 광주문화 주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문화도시 광주의 현재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신현창 '책과 생활' 대표가 운영하는 독립서점.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월호

2021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요" 다양해지는 기부 문화

클릭, 문화현장 ② '자유와 저항의 시인' 발자취 생생 김수영문학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⑧ 법주사 불법이 머무르는 그곳 고승 발자취 뚜렷

신년 기획 2022 광주 문화계 전망

신년 기획 美路 味路 전통과 자연의 숨결 영암엔 기가 흐른다

신년 기획 2022 광주 문화계 전망

2022 광주문화 어떤 사업 추진하나
- 광주시립미술관 30주년, 시립예술단 무대 주목

메향이 만난 이 사람
임인년 비상 꿈꾸는 '호랑이 띠' KIA타이거즈 외야수 박정우
엔틱한 클래식 담아 7집 앨범 낸 팝페라 테너 임형주

에앙 초대석

조태일문학상 수상한 '지리산 시인' 박남준

"밤에 드는 시 한편, 나누는 삶 큰 행복이요"

해외문화기행 ② 베를린 케테 콜비츠의 목직함 감동 예술의 도시 베를린에서 만나다

신년기획-월령 전시 송년의 위로, 새해의 희망 담은 전시들

밝히고 비추는 'Shining brightly' 전 '이질수 편화전 -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 전

화제의 인물 "늘 새로운 몸짓으로 태어납니다" 완도 출신 '합한' 현대무용가, 김보람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⑦ 영화 '불멸의 연인'과 베토벤의 소나타 14번 '월광'

왕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⑧ 사진작가 임응식, 돈가스에 청주 즐긴 명동 순례자